




선교사 : 허미라(Sarah)

다바오에서 소식전합니다.

센터사역

센터는 작지만 예쁘게 단장을 하고 open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들은 3월 기도편지에 보내드릴 예정>

센터에는 냉장고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준비되고, 기타와 키보드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조리 기구와 음료수와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기 팀이 오셔서 주신 라면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씩 센터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각 그룹에 따라 날짜가 정해져 성경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이 멀어서 차를 타기가 불편해서 잘 못 오던 학생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센터의 활용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미 있는 것은 학생들이 저마다 책상 등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바꾸자고 합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여, 관계성을 맺고 있던 학생들을 모두 초청하자고 해서 다음 주 정도에 잔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단기선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전도와 집회를 하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바로 허락도 거절도 하지 않고 이것 저것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하고, 결국에는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 공간만 허락을 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감사하게도 때마다 적극적으로 돕는 분들이 생겨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학교 한분 교수님이저의 사역의 격려자로 세워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단기 선교 팀이 정말 너무나 잘 준비해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었고, 듣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단기선교를 통해 은혜 받은 학생들 중에 연락처를 받은 학생들과 연결이 잘 되어야 하는데 주께서 그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 상황

USEP 전도는 시간이 되는 대로 학교 캠퍼스로 나가고 있고, 학생들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도하며 땅이라도 밟고 옵니다. 다른 학교는 한 주에 한 번 나가고, 한 학교는 이미 관계성을 맺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이스쿨은 저를 도와주는 아는 선생님 반만 그룹으로 만들어서 센터로 와서 성경공부를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양육 상황

한 여학생과 매주 주말에 양육을하기로 해서 어제부터 왔는데 새로운 친구들을 여러 명 데려와서 양육은 하지 못하고 한국의 80년대 게임을 하며 한 바탕 재미있게 놀고 관계성을 맺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육하기로 한 자매는 남아서 저와 함께 성경도 읽고, 다음 주말부터는 함께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생은 나이가 25살인데 오랫동안 지내 본 결과 훈련 되어진다면 주님의 사역자로 잘 세워질 좋은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심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수할 일꾼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분명 이곳은 추수할 것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함께 일할 젊은 사람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바오 상황

다바오에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 두 시간씩, 세시간이나 길게는 네 시간씩 전기가 끊어집니다. 비가 오지 않으므로, 모기는 때를 만난 듯 기승을 부리고, 날씨는 더욱 더워서 마치 산을 오르는 듯 험악하게 됩니다. 전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도 끊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나 저녁 늦게 빨래를 해야 합니다. 한번은 전기가 나가서 학생들과 센터에서 전기를 기다리며 밖에 나갔다가 안에 갔다가 반복을 하다가 거의 세 시간 후에 전기가 와서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저녁 준비를 해서 늦게 먹고 성경 공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다가 전기가 나갈 확률 때문에 자주 저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속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제목

1.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믿음으로 능력 있게 되고, 지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잘 이겨내도록
2.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헌신된 젊은 형제 자매들)
3. 전도가 잘 이루어지고, 전도된 영혼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4.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 세우고, 세운 영혼들을 주님의 사역자로 잘 준비하도록
5. 양육하기로 한 자매(Michel)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진심을 깨닫게 되도록.
6. 센터를 잘 활용하도록
7. 센터에 스케줄을 잘 잡아서 지혜롭고 질서 있게 모든 일을 잘 해 나가도록
8. 3월에 USEP 에 학교 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이 일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9. 단기선교로 맺어진 관계성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교제가 되도록.

1. 후원계좌 : 외환은행 181-04-01160-025
2. 예금주 : 허미라
3. 해외선교회 : 02-3775-4471

E-Mail: worthylife@hanmail.net

Phone: 010-3538-1222(한국에서만 사용)

필리핀전화: 0928-721-5042 (필리핀에서 사용)
0916-523-4316 (필리핀에서 사용)

인터넷 전화: 070-4046-0098

해외선교회 재정부: 070-8251-4471